

보컬을 위한 영어딕션 연구
-이중모음 [aɪ], [eɪ], [ɔɪ], [aʊ], [oʊ]를 중심으로-
English Diction Research for Vocals
-mainly focused on the Diphthong [aɪ], [eɪ], [ɔɪ], [aʊ], [oʊ]

배 셋 별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Bae Saetbyeol

SangMyung Univ., Music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보컬을 위한 영어 딕션법을 이중모음 [aɪ], [eɪ], [ɔɪ], [aʊ], [oʊ]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먼저 영어음성학을 기초로 소리 내는 법을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노래할 때 필요한 딕션법을 정리했는데, 이 항목에서는 이중모음을 노래말로 표현할 때 조음기관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각 항목의 예시로 영어노래 악보들을 첨부했으며 악보에 표기된 가사들은 원어, 국제음성기호(IPA), 한글표기 세 가지로 분석하여 노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I. 서론

노래 가사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주관의 영역이다. 표준어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표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표준어 발음 전달 여부에 주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의 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할 수 있으며 청자의 선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 정답일지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음악적인 아름다움은 학문적 완성도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방법론을 사전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영역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딕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다면, 잘못된 조음을 하거나 소리가 과도하게 부자연스러워져 청자와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음악적 아름다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딕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실제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딕션 연구를 통해 음악적으로 효과적인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상당 부분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발음 (mispronuncia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음성학 분야의 연구를 활용해 표준 발음법을 제시할 것이다.
- 보컬의 딕션을 다룬 분야의 연구를 참조하여 /r/과 /l/을 노래할 때 필요한 딕션법을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율선의 음높이와 리듬의 변화에도 청중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지 않고, 음악적인 표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딕션법을 제시할 것이다.

- 각 사례에 악보를 첨부하여 실제 노래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사분석의 경우 영어표기와 IPA국제음성기호표기, 한글식 표기를 사용해 영어에 익숙지 않은 사용자들도 참조하기 편하게 한다.

2. 연구범위

- 1)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휴지의 유무, 발화 속도, 발화 태도, 강세의 표현 등 다양한 음운론적 현상의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집약적인 연구를 위해 그 범위를 이중모음의 연구로 제한시키는 바이다.
- 2) 영어를 일상어로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보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령별, 인종별, 시대별 다양한 발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 연구는 영어 발음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발음 표현 중 영문법에 기초한 일부를 제시하고자 함을 밝힌다.
- 3) 집약적 연구를 위해 미국식 영어 발음 표현 규칙에 기초해 미국식 영어로 된 노래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II. 본론**1. 말할 때와 노래할 때의 조음 차이**

노래할 때는 말할 때보다 음역의 폭이 넓고 멀리까지 전달해야 하며 음정과 리듬을 가사에 붙여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전달의 측면뿐 아니라 음악적인 느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래할 때 공명강(共鳴腔)의 면적은 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조음기관의 큰 방해 없이 공명강을 넓게 확보하였을 때 공명이 풍부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말할 때의 조음은 대체로 혀의 위치가 높고 아래턱의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명강 중 하나인 구강의 면적이 좁아지고 인두를 좁혀 발음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공명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된다.

2. 이중모음의 음성학적 조음 규칙

이중모음이란 본래 ‘두 음’이라는 뜻이지만, 정확히 말해 한 음절 안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가는 하나의 음이다. 가령 house라는 단어의 음절핵이 [aʊ]라고 한다면, 이것은 [a]와 [ʊ]라는 두 모음의 결합이라는 뜻이 아니고, [a]가 발음되는 조음 위치에서 출발하여 [ʊ]의 조음 위치를 향해 그 두 음의 최단경로를 미끄러져 가듯 발음하라는 뜻이다. [aʊ]가 두 개의 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은 소리의 에너지가 두 음에 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aʊ]의 경우 강세는 대부분 [a]에 가고 [ʊ]는 매우 약하게 발음된다.

3. 노래할 때 이중모음의 규칙

- 두 모음 사이에 분리가 있어선 안 되고 첫 모음을 지속하면서 두 번째 모음으로 옮겨간다.
- 한 모음에서 다른 모음으로 옮겨가는 순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 두 개의 합해진 모음을 발음하는 동안 조음기관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야 한다.
- 첫 번째 모음은 마지막 순간 두 번째 모음을 노래할 때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 하나 이상의 음표 위에 이중모음을 노래할 때는 첫 모음은 모든 음표에 지속되며, 두 번째 모음은 마지막 음표의 마지막 순간에 더해진다.
- 두 번째 모음으로 옮겨가면서 음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의식하며 정확한 음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첫 모음을 일상생활 구어체 보다 좀 더 열린 소리로 발음해준다.

[aɪ]: 밝은 [a]와 [ɪ]가 합쳐진 발음으로 노래할 때 [a]음을 길게 하고 [ɪ]는 약간 짧게 발음한다.

[eɪ]: 먼저 아랫입술을 떨어뜨려 [e]소리를 낸 후 그 음절의 맨 끝에서 [ɪ]로 빨리 바꾸어 발음한다.

[ɔɪ]: [ɔ]음을 내기 위해 입술을 내밀어 정확히 열린 ‘오’를 발음한 뒤 뒤에 오는 모음을 발음한다.

[aʊ]: 밝은 [a]로 시작해 [u]보다 큰 입모양을 가지는 [ʊ]와 연결하는 이중모음이다.

[oʊ]: 영어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단모음 [o]와 큰 [u]소리인 [ʊ]를 합쳐서 내는 소리이다.



went a- 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grou lɔ:n] and su:n aɪl]
그로울 롱 앤 순 아

▶▶ 그림 1. 악보예시 ‘Autumn Leaves’

III. 결론

노래할 때 공명의 증대를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거나 모음, 자음을 음악적으로 구사하여야 하는데, 일상적인 언어 습관은, 가장 시 필요한 조음기관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특히 모음의 경우 노래에서 배음을 주로 만들어내므로 부드럽고 열린 소리로 연결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음 기관들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폭넓은 울림과 풍부한 음색, 명확한 가사의 전달을 해야 하며, 말할 때의 조음을 노래할 때의 조음으로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음절단위 언어인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 프레이즈 단위로 연습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기에 분절된 형태의 조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공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음악적 표현을 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소리들이 해당 언어의 음성기호(IPA)만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음악적인 소리를 표현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귀에만 의지하는 습관적 가사 표현을 넘어서 음성기호를 활용해 보다 정밀하게 조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1] Kathryn Labouff, 성악인을 위한 영어 디션, 2003
- [2] 김혜실, 쉽게 배우는 영어디션, 예술, 2009
- [3] 조안 윌, 로버트 콜드웰, 트레이시 가빌레인즈, 세일러 알렌, 성악인을 위한 디션, 음악세계, 2005
- [4] 전상범, 영어음성학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2010
- [5] 이경숙, 조음과 공명의 연계를 통한 어린이 합창발성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2003